

# 안무가가 인식하는 무용비평의 기능탐색

전지은\* · 박인자\*\*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현존하는 모든 예술은 예술을 감상하는 관객에 의해 그 가치가 형성되며 입증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디어의 발달과 문화현상에 따라 공연의 생산과 소비가 이전보다 빠르게 형성되고, 1) 예술 생산자의 예술적 관점 또한 관객의 대중적 기호와 예술의 산업화에 따른 소비적 가치에 따라 자극적이고 일회적인 형태의 예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의 비평은 관객의 올바른 예술적 경험과 이해를 돕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비평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견해와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무용비평은 무용의 물리적 특성과 신체 움직임의 미적 반응들을 일회적 감상을 통해 지면으로 표현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현재의 무용 현황을 보고하거나 작품을 해석하고 기록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무용관객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이처럼 무용비평은 무용작품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작업으로서 무용을 기록하고 재생산 한다는 측면에서 무용 생산자인 안무가와 비평가는 상호 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무용의 창작과정은 안무가의 심리적 인상을 리듬구조에 맞추어 즉흥적, 또는 계획적인 움직임의 질서 안에서 작품을 시각화한다. 그러나 무용의 순간적 시각화의 특성 때문에 비평은 다시 문자 언어로 재해석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비평의 학문적 견해와 방법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을 지닌 비평의 학문적 견해는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분류의 기준을 통일하지 못하여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박사과정.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ijpark@sookmyung.ac.kr

1) 이은선(2005), 해체비평의 무용비평으로서의 적용, 『한국무용학회지』 5(1), p.43.

2) 황인주(2001), 무용비평의 영역과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1, p.128.

이다.<sup>3)</sup> 이는 비평가의 주관과 비평적 견해에 따라 비평의 내용이 달라지는 객관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전문가 비평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비평은 작품을 시각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 예술의 양상과 예술성에 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평의 역할과 기능은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19세기 프랑스 문예비평가 생 뷰브(Charles Augustin de Sainte-Beuve, 1804-1869)는 비평의 조건을 “자기 자신의 예술이나 문체를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sup>4)</sup> 이는 비평가의 주관적인 평가의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으로 해석되어지며, 비평가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비평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봄직 하다.

‘인식(Cognition)’<sup>5)</sup>이란 지식과 동일시되는 단어이나 지식 습득을 통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미 그대로 인식연구는 안무가의 비평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진단 가능하게 함으로서 예술 현상과 사회 안에서 무용비평이 갖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대의 안무가들은 비평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어 비평을 수용하는 태도 역시 한정적이었다. 안무가가 평가의 불호에 의존하는 것은 흑백의 접근으로서 비평의 긍정적 가치를 이해하기에 앞서 핵심적인 조언을 놓치게 한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수용태도는 비평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된다.<sup>6)</sup> 안무가의 인식에 내재된 비평 기능을 고찰하는 것은 안무가의 비평 수용태도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무가에 의해 비평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장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미국의 무용학자 안드레 레페키(Andre Lepecki)와 마크 프랑코(Mark Franko)는 형이상학적 비평을 통해 무용의 순간성에 대해 고찰<sup>7)</sup>하였다. 레페키는 마샤 시겔(Marcia Siegel)의 ‘무용은 존경 받을 만하거나 존중될 만큼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순간성은 하찮음으로 오해받는다.’는 발언을 인용<sup>8)</sup>하면서 무용의 특성이 하찮음으로 인식되는 것을 지적하고, 비평가와 무용연구자들의 인식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sup>9)</sup>하였다. 이지현(2013),<sup>10)</sup> 최선희(2010)<sup>11)</sup>는 이들의 무용 인식연구에서 무용비평의 인식에 대해서는 무용 예술인의 활동이 인식 형성의 중심에 있고, 그들의 인식 변화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무용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학 전반의 개념화와 비평 역할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하였다. 이는 무용비평이 무용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연구적 자서로 무용예술의 특질을 고찰하여 무용의 학문적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무용분야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인식의 대상과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서 진행되어 왔다.

무용분야의 인식연구는 인식조사를 통해 소비심리<sup>12)</sup>나 자아 존중감,<sup>13)</sup> 만족도<sup>14)</sup> 등의 연구가 이루어

3) 이정애, 이옥은(1994), 무용비평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4, pp.123-124.

4) 안병주, 김효순(1997), 문자 미디어의 기능으로서 무용비평, 『체육학논문집』 25, p.153.

5) 네이버지식백과, 철학사전 키워드 ‘인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531&cid=41978&categoryId=41985>, 2021. 2. 15.>.

6) 김채현(2000), 춤 비평을 위한 글-춤 평론의 사회적 기능, 『춤과 지성』(2000년 1호), p.129.

7) 김수인(2013), 춤의 언어화, 문서화, 기록보관을 둘러싼 담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4), pp.12-13.

8) Lepecki, A.(2004a), *Concept and Presence: The Contemporary European Dance Scene in Re-thinking Dance History: A Reader*(NY: Routledge), p.130(김수인(2013), 춤의 언어화, 문서화, 기록보관을 둘러싼 담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4), p.13. 재인용).

9) 앞의 책, pp.12-13.

10) 이지현(2013), 무용작품의 대중성 증진을 위한 안무자들의 인식과 발전 방향, 『무용역사기록학회』 30.

11) 최선희(2010), 무용전공인의 국내무용전문지 인식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어졌으며, 대학생, 일반인 등 연구 대상의 범위에 따라 무용 인식조사<sup>15)</sup>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인식조사 척도 개발<sup>16)</sup> 등 무용의 인식연구는 다양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무용비평의 기능에 특정한 인식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비평인식의 유사 연구는 음악비평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음악분야 박진홍(2018)<sup>17)</sup>의 인식연구는 비평 수용자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류하여 인식조사가 이루어졌다. 인식조사를 통해 지면의 활용과 전문 비평의 신뢰성 등 비평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평의 평가행위가 예술가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음악분야 역시 비평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의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음악분야를 아울러 비평인식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예술의 학문적 가치를 통해 예술 문화의 방향과 흐름을 제시해야할 비평가의 향방을 제시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무용비평 연구는 비평 대상의 존재와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비평의 특성 때문에 미학적, 철학적 접근을 통한 원론적인 형태의 문헌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으며, 무용비평의 대상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현상이나 비평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무용비평의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무용비평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평의 대상과 무용 현장에 관한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무용비평이 문체로서 사회 문화현상을 구현해내고,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평 대상과 그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비평의 기능이 무용 현장에서 안무가에게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무용비평 기능의 인식조사를 통해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에 관한 이해와 분석의 필요성 및 대상에 따른 무용비평 기능 연구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무용비평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의 재고가 이루어져 무용비평이 안무가의 안무활동에 용이한 방향과 시각을 제시하고, 무용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발판이자 수단으로써 적절히 활용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을 둔다.

---

12) 이재경(2015), <댄싱9> 시청을 통한 무용인식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3) 장정민(2005), 무용전공자들의 체형인식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 지경민(2011), 무용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중학생의 인식도 및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재희(2013), 대학 교양무용 참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유형이 친밀감과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1(2).  
 15) 웅영신(1998), 대학생의 무용인식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승리(2017), 일반인의 무용공연 경험이 무용인식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옥순(2009), 한류를 통한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7; 송미숙(2009), 초등학생의 표현활동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8; 최영식(2010), 대학생의 무용예술에 대한 인식도 조사-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 이진희(2011), 무용인식의 구성요인탐색 및 측정도구개발, 『무용역사기록학회』 23.  
 17) 박진홍(2018), 특집: 학술대회 지상중계 <음악평론 문화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클래식음악비평에 대한 음악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 『한국음악융합학회 학술대회』 10.

## II. 이론적 배경

### 1. 무용비평의 개념

비평은 라틴어 'Criticus'와 그리스어 'Krinein'에서 그 어원이 유래된 것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Criticism 또는 Kritik로 사용되어지며, '분할', '판별'을 의미한다. 분할과 판별은 넓은 의미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예술에 있어서 특히 '가치판단'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므로 비평은 어떠한 대상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미로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분할'은 작품을 호, 불호로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을 재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평의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전히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비평의 초기용법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 비평'으로서 작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행위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함의에 따라 보존이 결정된 텍스트가 문학과 동일시되는 경우, 또는 초기 조건이 보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평은 필수적인 과업이다. 비평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논평으로서 작품이 이의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를 말한다.<sup>19)</sup> 이를 무용에 적용하면 텍스트는 안무가의 행위를 거친 무용작품을 의미하며, 안무가의 작품이 예술적 의미를 갖거나 갖지 못한 경우에도 해석의 대상으로서 작품을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비평은 작가의 행위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으며, 비어즐리(Beardsely, Munroe, C.)는 작품의 의미가 저자의 사후에 바뀔 수 있으며, 저자가 인식하지 않았던 의미를 함의할 수 있다<sup>20)</sup>는 점에서 텍스트 비평의 모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술비평이란 예술에 대해 기술, 해석, 평가하는 행위로서 제롬 스톨니츠(Jerome stolnitz)는 '예술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가치 평가'로서 예술비평을 정의하고 있다. 예술 활동의 결과는 예술작품을 의미하며, 비평의 대상에는 예술을 표현하는 활동 주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용비평은 무용수의 움직임을 포괄하는 무용작품에 대한 비판적 가치평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sup>21)</sup> 예술에 대한 가치 판단의 작업으로써 타당도 높은 논리적인 평가를 의미<sup>22)</sup>한다.

비평은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규명하여 의의를 밝혀내는 것으로서 예술비평은 예술가와 대중을 잇는 매개적 기능으로서 작용한다. 이는 작품에 있어서는 예술적 의도와 미적, 지적 가치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시사하며 창작활동의 발전에 조력하고, 대중에게는 작품의 해석을 통해 작품을 판별해 줌으로써 미적 취미를 고취하는 것이다.<sup>23)</sup>

종합해볼 때, 비평은 예술에 대한 비평적 논의를 통해 작품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양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8) 김수민(2002), 무용공연활동에 있어서 무용 평론의 역할,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

19) 폴 헤르나디(1984), 『비평이란 무엇인가』(서울: 정음사), pp.25-26.

20) 박중길(2006), 『미학과 무용비평』(서울: 무지개사), pp.167-169.

21) 심정민(2004), 『무용비평이란 무엇인가』(서울: 삼신각), p.12.

22) 이은선(2005), p.42.

23) 강신미(1990),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무용비평에 관한 고찰: 1980년대 한국의 무용비평을 중심으로, 부산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 2. 무용비평의 역할과 기능

비평은 예술 작품의 미적대상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비평의 과정에서 비평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많은 철학적<sup>24)</sup> 접근이 있어왔다. 에드윈 덴비는 비평가는 무용수들이 실현해내는 것에 대한 의미와 작품의 가치를 언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작품을 수용하는 관객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며<sup>25)</sup>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평의 기능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로저 코플랜드는 그의 저서 <춤이란 무엇인가(*What is Dance?*)<sup>26)</sup>에서 무용비평의 요건을 서술적 묘사, 해석, 평가로 분류하였으며, 영문학자이자 비평의 과학적 연구로 인정받고 있는 폴 헤르나디는 비평이 갖춰야 할 요건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평은 독자를 위해 쓰여 져야 하며, 지나친 일반화나 특수화는 삼가야 할 것으로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내적의도가 작품을 읽는 행위에 의해 밝혀지는 것에 주의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작품의 예술적 가치 판단보다는 전문성과 개인적 견해를 적절히 적용할 것이며, 다양한 학문 간의 가교 역할로서 학문적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27)</sup>

존 하스퍼스 또한 기술, 해석, 평가의 작업을 통해 작품의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다.<sup>28)</sup> 이처럼 예술비평의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기술, 해석, 평가의 긴밀한 작업을 통해 작품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선택적으로 맥락적인 요소를 덧붙여<sup>29)</sup> 비평의 기능을 설명 할 수 있다.

비어즐리는 예술작품의 비평에 있어서 비평가 자신의 평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sup>30)</sup> 이는 비평가의 비평적 전문성과 주관적 견해에서 발생하는 비평의 문제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비평가는 비평의 기술과 평가, 관찰, 분석의 과정을 통해 비평적 기준을 형성하게 되고 비평의 과정은 미적 가치 판단의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sup>31)</sup> 이러한 가치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뒷받침 될 때 비평의 기능은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술은 무용공연의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무용의 목적과 귀결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무용 현장의 기록을 통해 역사 기록적 측면에 기여한다. 기술은 해석과 평가의 근거가 되므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이기도 하며, 정확한 기술은 해석과 귀결될 때 더욱 명료한 의미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평가의 정당성에도 기여한다.<sup>32)</sup> 무용비평은 비평 대상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비평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비평에 있어 해석과 평가가 상보적 위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시대적 상황과 관습, 문화현상 등 비평 대상과 교섭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24) 박중길(2006), p.165.

25) 심정민(2015), 『무용비평과 감상』(서울: 민속원), p.58.

26) Roger Copeland, Marshall Cohen(1983),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7) 김채현(2000), p.136.

28) John Hospers(1982), 『예술을 위한 변명 Understanding the Arts』, 김문환(역)(서울: 전예원, 1987), p.298.

29) 심정민(2015), p.58.

30) 조지딕키(n.d.), 『미학입문』, 오병남, 황유경(공역)(서울: 서광사, 1983), p.204.

31) 이은선(2005), pp.42-43.

32) 심정민(2015), pp.59-61.

수행한다.<sup>33)</sup> 앞서 언급한 비평의 세 가지 기능은 해석적, 재단적 관점에서 정의되었으며, 맥락비평은 예술의 역사와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예술의 과학적 접근을 의미한다.<sup>34)</sup> 이러한 맥락비평은 무용작품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과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이처럼 비평의 기능은 작품의 묘사나 평가 외에도 사회적, 역사적, 교육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비평은 수용하는 독자의 개인적인 특성, 미적취미, 예술에 대한 이해 정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무용비평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연구는 무용비평의 기능을 진단함과 동시에 무용비평 독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여, 비평이 올바르게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자연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 연구는 그동안 자연, 인문, 사회, 응용 등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인 연구 방법으로 차용되어 왔던 객관주의 패러다임의 한계에 대항한 아이디어로서 현재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연구 접근으로 인정받고 있다. 질적 연구는 대상과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심층기술,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법이다.<sup>35)</sup> 반면, 질적 연구는 그 속성상 대규모 자료를 수집하거나 집단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개별 질적 자료에 대한 해석적 관점을 견지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거나 이를 통한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개방형 질문(open questionnaire)은 질적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일부 극복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sup>36)</sup>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안무가가 인식하거나 경험한 비평의 기능을 질적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동시에 안무가들의 이러한 인식과 경험을 단순히 평면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개방형 설문을 활용한 사례연구로 수행하게 된다.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무용을 전공하고 현재까지 안무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안무가로서 공연 단체 소속 단원, 안무 단체의 대표, 무용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세계 춤 축제’와 같은 안무가 협회에 소속 된 자이다. 그 밖에 안무가전과 같은 등단 과정을 거치거나 다수의 자작품(自作品)이 있는 안무가로서 인정될 만한 자

33) 유성호(2003. 3.), 비평의 해석과 비판기능: 하상일, 타락한 중심을 향한 반역, 허정, 먼 곳의 불빛, 『오늘의 문예비평』 (2003년 3월호), p.42.

34) 제롬 스톨니쯔(Jerome stohnize, 1960), 『미학과 비평철학』, 오병남(역)(서울: 이론과 실천, 1999), pp.424-431.

35) 장상호(2000), 『학문과 교육(하): 교육적 인식론이란 무엇인가』(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근원(2008),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46(3), pp.133-161.

36) 김무영(2007),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체육예비교사 문화의 비판적 이해,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1(1), pp.67-81; Sungwon Kim(2008), Children's God Concepts through Open-ended Questions,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 pp.139-159; Yu-Na An, Ho-Sim Shin, Hyun-joo Kim(2012), Development of Views on Science Questionnaire on the Basis of Experience Scientific Knowledge, Atomic Model,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3).

격을 가진 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의 전체 응답자는 100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자 15명을 제외한 85명의 응답만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는 여성의 비율이 70.6%, 남성은 29.4%이다. 응답자의 전공 및 활동 과목은 현대무용 38.8%, 발레 34.1%, 한국무용 20%, 기타(뮤지컬 외) 7.2% 순이며,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 3.5%, 대졸 18.8%, 석사 38.8%, 박사 이상 38.8% 이다. 설문문에 응답한 안무가의 61.2%는 본인의 작품에 관한 무용비평 경험이 유효하였고, 38.8%는 무용비평 경험이 무효하였다. 이들의 무용비평 경험의 최소 횟수는 1회 이상이며, 다 경험자는 20회 이상이다. 그 외 비평 무경험자로 연구대상이 분류된다. 여기서 ‘비평경험’이란, 안무가 자신이 창작하고 공연한 작품이 비평가에 의해 비평 되었을 때 자신의 안무에 관한 비평문을 읽어본 경험을 의미한다. 비평경험이 없는 안무가 집단을 포함한 연구 참여자 전원은 무용전문지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무용비평에 주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설문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집단의 안무 경력은 평균 5~10년 이상(32.1%)으로, 최단 2년 이내 (31%), 2~5년 이내(10.7%), 10~15년 이상(22.6%), 최장 20년 이상(22.6%) 경력자들이며, 연구 참여자의 연령 비율은 20대 18.8%, 30대 56.5%, 40대 20%, 50대 4.7%이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개방형 설문지이다. 비평가의 비평 역할과 기능에 대한 안무가의 인식과 경험은 그 개념 자체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또한 안무가가 인식하는 비평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개방형 설문문을 통한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은 응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를 비교적 광범위하고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성별, 학력, 전공분야, 직업, 활동경력, 비평경험과 비평정보를 얻는 매체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개방형 질문으로서 ‘1. 귀하가 생각하는 무용비평의 기능은 무엇인가요?’와 ‘2. 귀하의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비평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의 질문을 하였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단어에서 한 문장 혹은 그 이상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한국 과학 기술 인력 개발원(KIRD)’에서 제공하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 윤리(인문사회계)교육’을 이수하였다. 연구의 진행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참여자의 권리, 비밀보장에 관하여 구두와 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 안무가로서 동의서에 동의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의 수집은 2020년 7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5개월 간 진행 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과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기기입 방법으로 개방형 설문문에 응답하거나,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연구의 취지를 밝힌 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작성된 설문지를 링크로 연결하여 메시지로 전달하고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된 설문

지는 모두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여 취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100매로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85부만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또한 이들 85부 중에서 비평경험이 있는 그룹에만 해당하는 질문2.에 대해서는 비평경험자의 응답 52부만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질문1.은 안무가의 일반적인 비평인식을 알아보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질문2.는 응답자의 비평 경험 유무를 선별해냄과 동시에 비평경험에서 나타는 인식과 일반적인 비평의 인식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방법을 활용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은 비 구조화된 자료의 해석을 통하여 추론하고 결론을 맺는 과정으로서, 자료가 함축하는 메시지의 특징을 관점의 분석 준거에 기준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sup>37)</sup>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응답 내용은 성별, 학력, 연령, 비평경험의 유무, 안무경력 등 배경 변인을 포함하여 입력하였다. 응답의 내용은 한 단어(예: 소통, 평가), 또는 여러 문장(예: 공연되어진 고유한 시간의 기록이자 작가, 혹은 작품에 대한 정보 및 비평가에 의한 해석이다.)이었으며, 질문1.의 응답에 대한 원 자료는 최초 168개로 분류되었다. 질문2.의 응답의 원 자료는 112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수의 개념이 담긴 응답(예: 작품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재공연 시 수정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은 따로 분류하여 독립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입력된 원 자료는 유사성에 따라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 내용이 불분명한 응답 8개(안무가 특성, 멋지다 느낌니다, 작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등)는 제외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질문1.의 최초의 자료 168개는 145개로 축소되었고, 이것은 하위 영역 13개로 분류되었다. 질문2.의 자료 112개는 하위 영역 7개로 분류되었다.

셋째, 주제의 유사성에 따라 질문1.은 13개로 분류된 하위 영역에서 다시 7개로 중 분류되었으며, 다시 상위 영역의 4개로 분류되었다. 질문2.는 7개의 하위 영역에서 3개로 중 분류되었고, 상위 영역의 2개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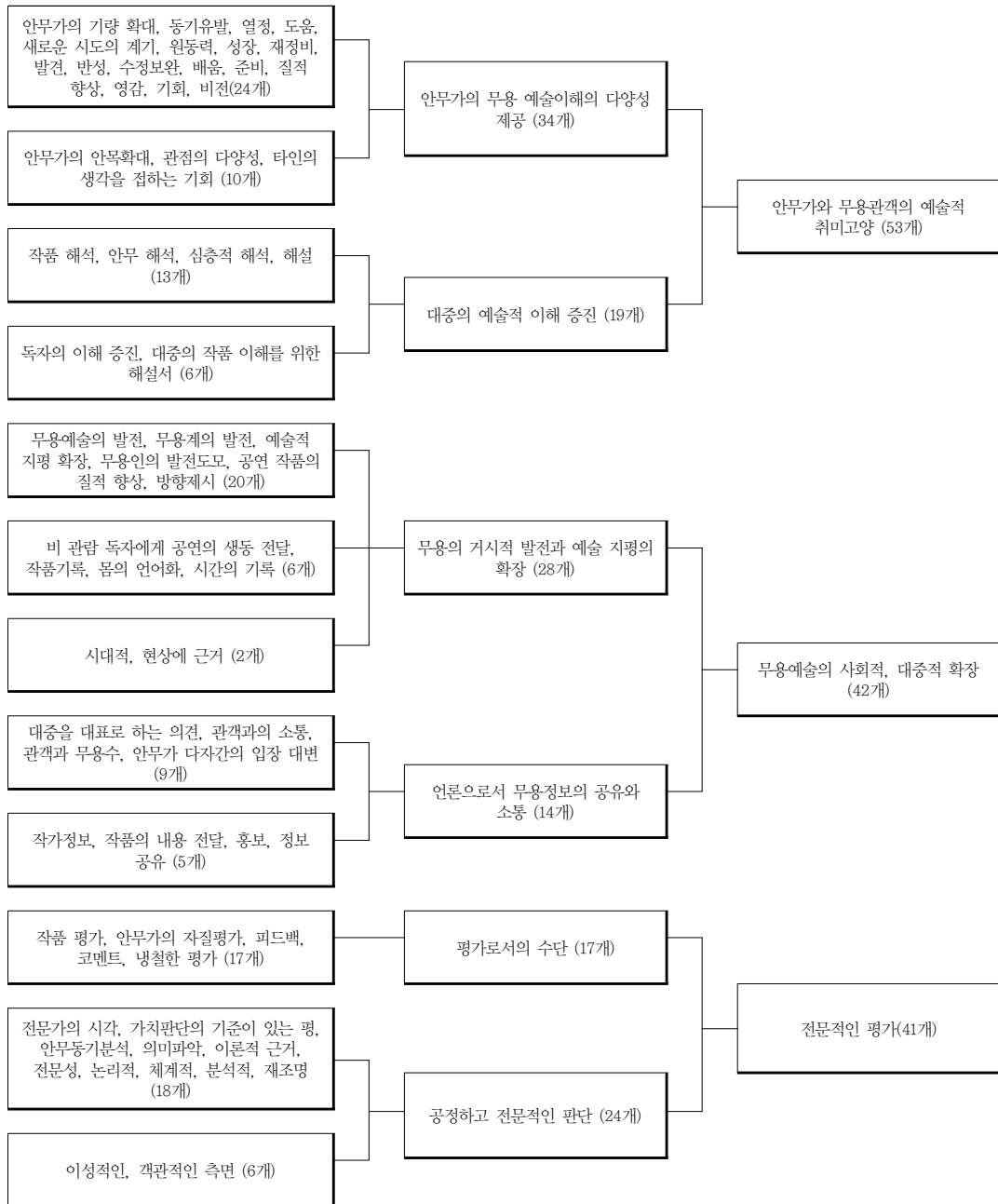
넷째,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 1명, 박사과정 연구자 2명에게 내용분석을 의뢰하고, 개별 확인된 의견을 수렴하여 원 자료를 분류하였다. 또한 검토 의견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합의하여 도출하였다.

37) 김민정(2017), 고등학교 학급 체육부장의 이미지에 관한 귀납적 내용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9.

## IV. 연구 결과

안무가가 인식하는 무용비평의 기능에 관한 응답내용은 귀납적 내용 분석의 과정을 거쳐 분류되었다. 질문1.은 현역 안무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문2.는 질문1.의 응답자 중 현역 안무가이자 본인 작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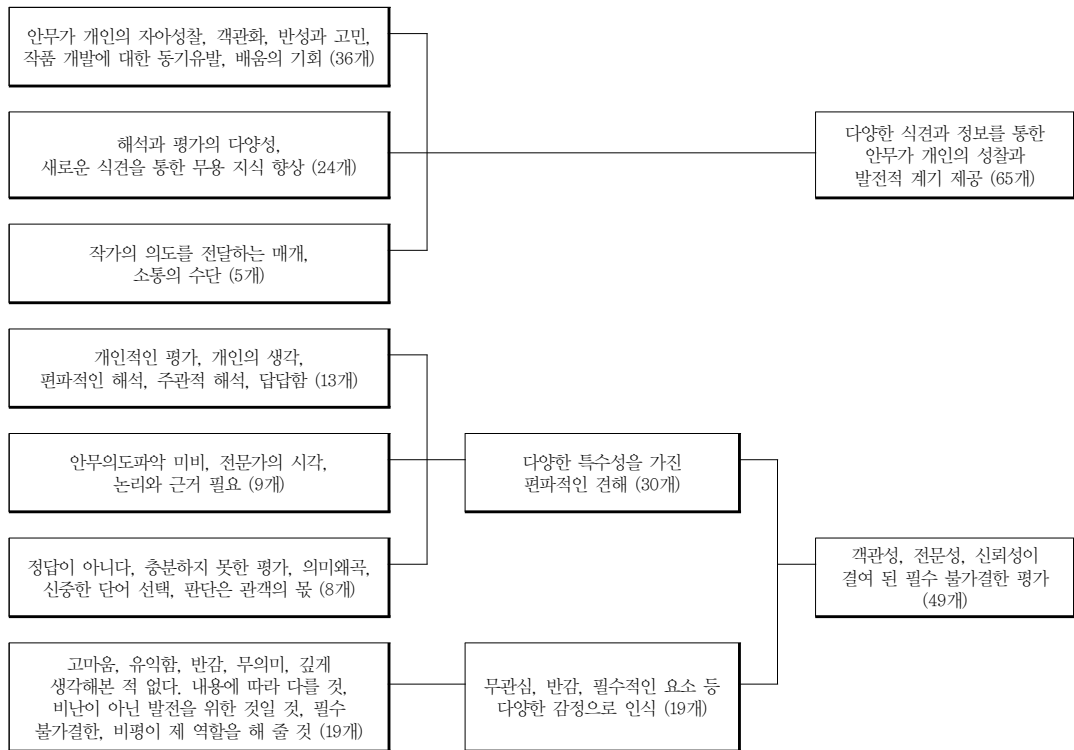
〈표 1〉 안무가의 일반적인 무용비평 인식



대한 비평문을 받아 본 직접 경험자 52명의 응답으로 분류되었다.

내용분석을 통해 질문1.은 하위 영역 13개, 중위 영역 7개, 상위 영역 4개로(〈표 1〉 안무가의 일반적 인 무용비평 인식), 질문2.는 하위 영역 7개, 중위 영역 3개, 상위 영역 2개로 분류(〈표 2〉 비평경험이 있는 안무가의 무용비평 인식)되었다. 먼저 질문1.의 응답을 살펴보면 안무가의 무용예술 이해의 다양성(34개)과 대중의 예술적 이해 증진(19개)으로 이해되는 안무가와 무용관객의 예술적 취미 고양(53개)에 대한 인식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언론으로서 무용정보의 공유와 소통(14개)을 통한 무용의 거시적 발전과 예술 지평 확장(28개)을 도모하는 무용예술의 대중적, 사회적 확장(42개)으로 인식하였다. 셋째로는, 안무가의 자질이나 작품에 대한 평가로서의 수단(17개)이자,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24개)으로서 전문적인 평가(41개)로서 인식하였으며, 그 밖에 비평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함(9개)으로 나타났다.

〈표 2〉 비평경험이 있는 안무가의 무용비평 인식



질문2.의 응답에서는 안무가 개인의 자아성찰, 객관화와 반성(36개),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과 무용 지식 향상(24개), 소통의 수단이자 매개(5개)로서 다양한 식견과 정보를 통한 안무가 개인의 성찰과 발전적 계기(65개)로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인 평가, 주관적 해석, 답답함(13개), 안무의도 파악 미비, 논리와 근거의 필요(9개)를 들면서 정답이 아님, 의미왜곡, 신중한 단어 선택(8개) 등 다양한 특수성을 가진 편파적인 견해(30개)로서 인식하였다. 그 밖에 고마움, 반감, 무관심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19개)의 표출을 통해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이 결여된 필수 불가결한 평가(49개)로서 인식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안무가와 무용관객의 예술적 고양, 무용의 사회적, 대중적 확장, 전문적인 평가, 기타로 구분된다. 먼저, 질문에 응답한 안무가들은 스스로 비평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비평적 태도’로서 응답하였다.

여기서 비평적 태도란 스스로 가치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8)</sup> 안무가는 비평문에 나타난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움으로써 반성과 자기 성찰의 발판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작품의 해석은 안무가 개인의 성찰뿐만 아니라 비평 독자인 관객의 이해를 증진 시킨다는 점에서 예술가와 관객의 무용지식을 고양하고 매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비평의 기능은 안무가 개인에서 무용예술의 발전, 더 나아가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무용예술의 가치향상’, ‘무용공연의 발전’, ‘작품의 발전 가능성’, ‘지평의 확장’과 같은 응답이 이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1.에 나타난 응답 내용은 무용 발전에 관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서술이 배제되어 있어 학습되어온 무용지식에 의한 정형화된 인식으로서 이해된다. 안무가의 이러한 인식의 기반에는 비평이 실효적 가치로서 실재하거나 증명되어오지 못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무용 현장에서 발현되는 무용비평 기능의 실효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매체의 다양성과 비평지면의 확대는 무용비평의 영역을 확장하는 대신 아마추어 비평가의 활약을 통해 전문성의 기준이나 이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무가들이 접근하는 매체가 전문지 보다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은 SNS나 유튜브(YouTube), 인터넷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작품분석에 준하는 비평가의 평가는 그들의 발전적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만 놓고 볼 때 젊은 안무가들은 현 시대와 관객의 취미를 읽고 소통하여 그들만의 문화 현상을 고려한 동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평은 평가 이외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영역으로서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능의 인식 안에는 무용예술의 현상에 근거한 무용 시각화와 역사 기록으로서의 인식이 포함된다. 여기에 속하는 발전적 의미와 소통의 개념은 질문1.의 응답에서는 무용계의 발전과 같은 거시적 관점이었다면, 질문2.의 응답에서는 안무가 개인과 독자의 성찰을 도모하여 발전적 계기를 이루는 교량적 수단으로서 이해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용의 발전을 거시적 관점에서 인식한 바와 달리 비평 경험이 유효한 안무가들에게는 미시적 관점으로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의미 있는 수단으로서 인식하였다. 덧붙여 안무가의 안무 동기유발이나 역량 개발, 지식의 습득, 관객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 의견을 제공 받는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있다.

반면, <표 1>에서 분류된 상위개념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비평의 평가적 기능을 가장적인 빈도로 인식하였다. 또한 평가에 대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비평적 태도로서 인식하는 바와는 차이점이 있다.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것’, ‘평가를 냉철하고 사실적으로’와 같은 응답은 비평의 의미를 언어 그대로 해석하여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작품 보완의 기능’, ‘안무가에게 영감을 느끼게 해줌’과 같이 안무가의 개인적인 성찰을 도모한다는 질문2.의 응답과는 차별된다.

평가에 있어서 항상 뒤따르는 전문성과 객관성의 문제는 질문1.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 논리와 이성을 갖춘 전문적인 평가 수단으로써 비평의 의미 그대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기저에는

38) 오병남(역)(1999), p.349.

‘비평 신뢰의 문제’, ‘감상문에 지나지 않는 글’, ‘비평 유통의 감소’ 등 우려하는 기타 감정들이 동반되었다. 즉 비평적 특수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타 인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평의 기능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1.의 인식조사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비평의 사회적, 교육적 기능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으며, 무용비평의 기능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와 해석의 전문성을 근거로 관객과 예술가 양자에게 무용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무용지식의 전달과 기록을 통해 무용예술의 거시적 발전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평을 바라보는 안무가들의 비평적 태도에서 오는 불편함과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수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2.의 비평경험이 있는 안무가의 무용비평 인식은 현재의 무용비평 현장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상위 영역의 2개로 분류되었고 안무가의 개인적 성찰과 발전 도모,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이 결여된 필수 불가결한 평가로써 나타났다. 응답자는 본인 작품의 비평문을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비평의 인식에 있어 질문1.의 응답보다는 완전한 비평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응답의 문장이나 표현에 있어서 비평과 안무가의 필연성과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답이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반감’, ‘관심 없다’, ‘고마움’ 등으로 표현 하면서 비평의 문제와 관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안무가의 인식조사의 결과는 비평경험의 유무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대체로 비평경험에 의한 인식은 평가받는 주체로서 비평에 대한 일방적인 반감과, 동시에 비평을 통한 인정 욕구, 그에 따른 감사함 등 다양한 감정을 내재하고 있다. 결과의 차이점으로는 질문1.에 대해 이러한 감정을 기반으로 무용지성에 의존하여 비평을 인식하였다면, 비평의 주체로서 접근 하는 경우에는 내재된 감정에 더욱 솔직하였으며 비평에 바라는 점과 현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가감 없고 솔직한 감정은 ‘잘난 체 하기는’, ‘입만 살았네’와 같은 표현으로 드러난다.

무용비평이 안무가의 작품 활동에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안무가의 예술적 안목 확장으로 귀결되어진다. ‘비 관람 독자의 이해증진’, ‘대중을 위한 해설서’, ‘관객을 대표하는 의견’과 같은 응답은 비평이 작품에 대한 해석과 분석의 역할을 수반하고 있으면서도 관객의 관점을 이해 가능하도록 역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안무가가 비평가의 시각과 잣대 보다는 비평을 통해 대중적 관점에서 관객의 시각을 더 의식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무가에게 있어 대중적 시각은 창작의 기반이자 가장 큰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안무가가 관객을 의식하고 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이러한 역할의 매개로서 안무가의 인식 개선은 물론 관객의 시야와 안목을 확장시키고 대중의 무용 인식 고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평은 안무가와 관객의 무용지성을 고양하는 것이 가능하고 안무가가 관객에게 지향하는 바를 비평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다면 대중의 수용과 확장을 넘어 비평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에 따른 무용공연의 변화와 발전에도 기여 가능하다.

종합해 볼 때, 안무가는 무용지성을 기반으로 비평을 인식하는 것에 그쳤으며, 비평의 기능을 무용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외적 정보를 수용하여 대중적 지평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응답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개념화된 표현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무용비평의 실효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V. 결론 및 제언

존 마틴은 춤의 이론과 비평은 예술가의 창조적 행위를 동반해주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술가의 창작 방법론의 존재는 다른 예술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처음에는 예술가의 창조 행위를 우선으로 하지만 관객의 감상과 비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9)</sup> 즉 안무가는 관객의 감상과 비평을 통해 창작활동에 가치를 부여 받는 것으로서, 안무가의 무용비평 인식조사를 통해 비평 기능의 문제를 재고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용비평의 기능에 관한 안무가의 인식을 통해 무용예술 현장에서 무용비평이 어떻게 기능해왔는지 진단하고,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역의 안무가들에게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귀납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질문1.의 결과는 안무가와 무용관객의 예술적 고양(53개), 무용예술의 사회적, 대중적 확장(42개), 전문적인 평가(41개), 기타(9개)로 나타났으며, 질문2.의 결과는 다양한 식견과 정보를 통한 안무가 개인의 성찰과 발전(65개),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이 결여된 필수 불가결한 평가(49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무가는 전문가의 다양한 식견과 무용비평의 해석적, 기술적, 평가의 기능을 통해 작품을 검토하고 질적 정보의 획득을 통해 성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개인적인 감정의 이입 등의 문제를 통해 비평을 신뢰하기 어렵고, 정보 획득에 제한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비평의 해석은 안무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서 관객과의 소통이나 홍보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비평이 안무가의 개인적 성찰을 끌어냄과 동시에 관객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교육적 기능이자 사회적 기능의 수행으로써, 비평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안무가들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중시하였다.

셋째, 안무가는 작품이 비평되어질 때 비평가의 비평적 견해보다는 관객의 관점과 시각을 더욱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무가는 비평을 통한 작품 해석과 평가의 과정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의 발판으로써 인식함과 동시에 안무가의 언어를 비평이 명확히 그려낼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평의 신뢰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및 반감으로 인하여 매체의 전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현대의 안무가는 비평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객의 취미를 이해하고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의 수단이 방대해졌다. 급변하는 매체의 다양성만큼 비평 역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무용비평의 기능은 기능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인식차가 있었다. 모든 안무가는 일반적으로 비평의 기능을 원론적 틀 안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비평의 경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즉 비평의 원론적인 인식과 경험적 인식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비평의 기능이 비평 대상에게 신뢰받고 있지 못하며, 그동

39) 김태원(2015. 9.), <서거 30년을 맞아> 존 마틴의 비평적 태도와 관점, 『공연과 리뷰』(2015년 9월호) 21(3), p.20.

안 비평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로서 이를 위한 재고의 필요성이 나타난 부분이라 하겠다.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무가의 비평에 관한 입장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비평을 직접 경험하고 평가받는 대상이자 공연생산자이며, 둘째는 다양한 비평문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독자인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일방적인 수용자의 입장에 놓여있다. 비평을 수용하는 태도는 비평을 경험하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 다른 감정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것은 본 연구의 비평 인식 비교에서도 나타나 있다.

안무가의 대부분은 무용비평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능으로써 역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용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비평을 제공하는 비평가의 전문성 검증의 필요성과 무용현장의 비평 영역 축소, 비평가와 안무가의 상호 이해관계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과 노력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였다.

무용비평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개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무용 현장에서 비평을 경험하고 수용하는 안무가의 비평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무용비평이 그들에게 수긍할 만한 가치와 긍정적인 인식으로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실효적 측면의 진단과 기능의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무용비평은 비평적 특성 때문에 비평 대상의 호응과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고 밝혀내는 무용비평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용비평 기능을 지속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무용의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용비평의 진단을 위해서는 무용비평가와 연구자들의 무용 현장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평가는 독자와 비평 대상을 잇는 매개자로서 단 방향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언론으로서 안무가들이 처한 환경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무용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성 있고 신뢰성 있는 비평을 위해서는 비평 현장과 흐름을 파악하고, 현장뿐만 아니라 무용 안무가 즉 비평 대상의 이해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비평의 대상을 달리하여 무용예술과 비평의 인식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비평은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무용비평의 기능은 그 대상에 따라 달리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비평이 수행하고 역할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무용예술을 창작하는 안무가의 심상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을 독려하고 뒷받침 해줌으로서 무용 문화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비평 대상의 다양성에 근거한 인식 연구의 활성화는 무용 현상을 진단하고, 비평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평 대상과 독자를 달리한 비평 인식의 연구는 현재의 비평 현장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무용비평의 발전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비평가는 소모되고 있는 다양한 무용공연의 접근과 작품의 기록을 통해 독자에게는 많은 작품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동시에 젊은 안무가의 발굴과 양성의 발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젊은 안무가들은 급변하는 매체를 통해 비평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관객의 정보 수집 또한 더욱 용이해졌다. 이는 안무가가 언제든지 자신의 공연을 홍보할 수 있으며, 관객의 기호에 어울리는 작품을 구상해 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용비평이 이러한 매체의 경향과 다른 것은 전문화 된 학문으로서의 가치 때문으로 현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비평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비평 기능의 재고 뿐만 아니라 관객과 안무가가 획득한 정보를 보완해주려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비평이 비평 대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호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무용비평의 기능이 올바른 가치로서 수행되어 무용 현상이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현장 분석을 통한 실효적인 측면의 무용비평 분야의 연구 또한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박중길(2006). 『미학과 무용비평』. 서울: 무지개사.
- 심정민(2015). 『무용비평과 감상』. 서울: 민속원.
- 심정민(2004). 『무용비평이란 무엇인가』. 서울: 삼신각.
- 장상호(2000). 『학문과 교육(하): 교육적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지딕키(1983). 『미학입문』. 오병남, 황유경 (공역). 서울: 서광사.
- 폴 헤르나디(1984). 『비평이란 무엇인가』. 최상규 (역). 서울: 정음사.
- 제롬 스톨니즈(Jerome Stolnize)(1960). 『미학과 비평철학』. 오병남(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99.
- Hospers, John(1982). *Understanding the Arts*. 김문환(역). 『예술을 위한 변명』. 서울: 전예원. 1987.
- Lepecki, A.(2004a). *Concept and Presence: The Contemporary European Dance Scene in Re-thinking Dance History: A Reader*. NY: Routledge.
- Roger Copeland, Marshall Cohen(1983).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김무영(2007).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체육예비교사 문화의 비판적 이해.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1(1): 67-81.
- 김수인(2013). 춤의 언어화, 문서화, 기록보관을 둘러싼 담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4): 1-26.
- 김옥순(2000). 한류를 통한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7.
- 서근원(2008).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 46(3): 133-161.
- 송미숙(2009). 초등학생의 표현활동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8.
- 안병주, 김효순(1997). 문자 미디어의 기능으로서 무용비평. 『체육학논문집』 25: 141-154.
- 이은선(2005). 해체비평의 무용비평으로서의 적용. 『한국무용학회지』 5(1): 41-49.
- 이정애, 이옥은(1994). 무용비평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4: 121-131.
- 이지현(2013). 무용작품의 대중성 증진을 위한 안무자들의 인식과 발전 방향. 『무용역사기록학회』 30: 157-182.
- 이진희(2011). 무용인식의 구성요인탐색 및 측정도구개발. 『무용역사기록학회』 23: 99-117.
- 최재희(2013). 대학 교양무용 참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유형이 친밀감과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1(2): 157-177.
- 황인주(2001). 인문, 사회과학논문: 무용비평의 영역과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1: 127-140.
- 강신미(1990).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무용비평에 관한 고찰: 1980년대 한국의 무용비평을 중심으로.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2017). 고등학교 학급 체육부장의 이미지에 관한 귀납적 내용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민(2002). 무용공연활동에 있어서 무용 평론의 역할.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승리(2017). 일반인의 무용공연 경험이 무용인식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용영신(1998). 대학생의 무용인식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경(2015). <댄싱9> 시청을 통한 무용인식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정민(2005). 무용전공자들의 체형인식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경민(2011). 무용예술가사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중학생의 인식도 및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희(2010). 무용전공인의 국내무용전문지 인식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식(2010). 대학생의 무용예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 Yu Ra., Shin, Ho Sim., Kim Hyun Joo(2012). Development of Views on Science Questionnaire on the Basis of Experience Scientific Knowledge, Atomic Model.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3).
- Kim, Sung Won(2008). Children's God Concepts through Open-ended Questions.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 139-159.
- 김채현(2000). 춤 비평을 위한 글-춤 평론의 사회적 기능. 『춤과 지성』(2000년 1호). 129-138.
- 김태원(2015. 9.). <서거 30년을 맞아> 존 마틴의 비평적 태도와 관점. 『공연과 리뷰』(2015년 9월호). 21(3): 9-21.
- 네이버 지식백과, 철학사전, '인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531&cid=41978&categoryId=41985>, 2021. 2. 15.>.
- 박진홍(2018). 특집: 학술대회 지상중계 <음악평론 문화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클래식음악비평에 대한 음악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 『한국음악응용학회 학술대회』 10: 10-24.
- 유성호(2003). 비평의 해석과 비판기능: 하상일, 타락한 중심을 향한 반역. 허정. 먼 곳의 불빛. 『오늘의 문예비평』 42-55.

논문투고일 2021. 02. 15.

심사일 2021. 03. 06.

심사완료일 2021. 03. 11.

## A Study on the Functions of Dance Criticism Perceived by Choreographers

Jeon, Ji Eun\* · Park, In Ja\*\*

Ph.D Candidate, Department of Dance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Director, Dancers' Carrer Development Center\*\*

This study aimed to diagnose the functions of dance criticism by considering dance choreographers' perception of criticism that is placed in the center of dance arts as an object of criticism. For this study, the open-ended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drawn through the inductive analysi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most of the choreographers approached criticism through various media, and they had the conceptual and stereotyped perception of the functions of criticism. However, the choreographers who experienced criticism of their own works in field, reviewed works based on experts' various opinions, and also perceived it as a means of introspection. At the same time, they raised problems like absence of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distortion of meanings, lack of validity, and narrow mindedness. Therefore, to set up the value that could be accepted in field, it would be certainly necessary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object of criticism.

**Keywords:** Functions of dance criticism(무용비평기능), Perception of dance criticism(무용비평인식), Criticism perceived by choreographers(안무가의 비평인식), Dance criticism perception survey(무용비평인식 조사), Experience of dance criticism(무용비평경험)